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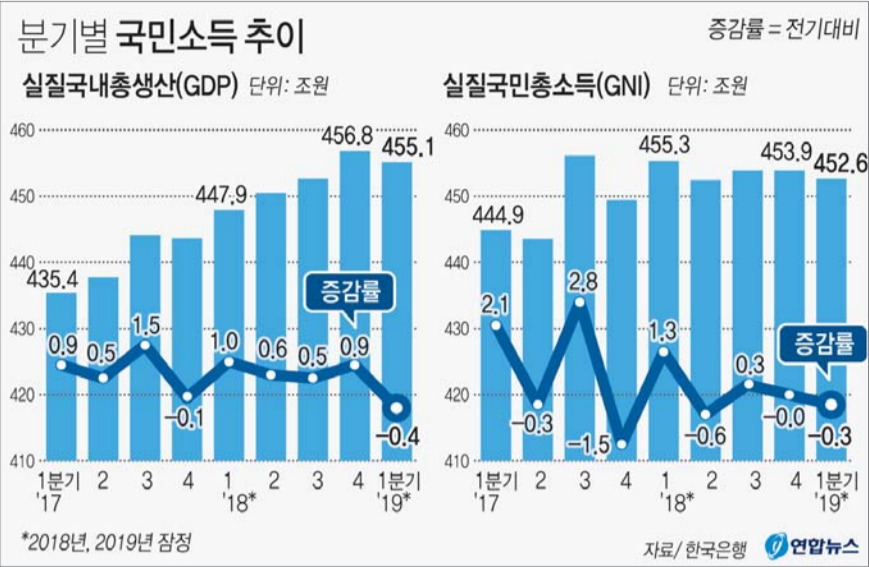


[해설] 권오갑 현중 부회장 한국조선해양 대표 선임 경쟁國·노조 설득이 과제 03



Economy

코스피	2066.97 (-0.88)	코스닥	702.53 (+5.03)
금리 (미국 3년)	1.57 (-0.01)	환율 (원/달러)	1182.80 (+0.70) (4일)



1분기 성장률 -0.4%, 총소득 -0.3%

국민 살림살이 더 팍팍해졌다

수출·설비·건설 투자 부진에 성장률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 연간 2%대 중반 성장도 불안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0.3% 예상치에서 실제로는 -0.4% 역성장하며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부진했기 때문이다.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에 비해서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한은은 이번 지표는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속보치 대비 수정 정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속보치는 -0.34%, 잠정치는 -0.37%로 0.03%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속보치 추계를 할 때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로 반영했다"며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개편 결과가 반영돼 과거 시계열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감소 전환한 것은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3.2% 감소하며 지난 2017년 4분기(-4.5%)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수입도 3.4%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9.1% 감소했다. 속보치보다는 1.7%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나 지난 2008년 4분기(-12.1%)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도 0.8% 줄어 지난해 3분기(-6.0%) 이후 감소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0.1%, 정부소비는 0.4% 증가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1.1%포인트였으나 올 1분기 -0.6%포인트로 내려앉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면서 정부나 한은이 전망하는 2%대 중반 성장도 불안한 상황이 됐다.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연간 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선 2분기 1.3~1.4%, 3~4분기 각각 0.9~1.0%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

박양수 국장은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며 "한 두 달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도 전기 대비 0.3% 감소하며 지난해 2분기(-0.6%) 이후 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 주머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총저축률은 34.5%로 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12년 4분기(34.1%) 이후 6년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투자율도 전기 대비 0.7%포인트 떨어진 30.7%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양정철의 '기업 스킨십' 광폭행보

(민주연구원장)

연구기관과 정책 네트워크 확대 8월까지 현대차 등과 정책 협약 전문분야별 주제 정해 연구진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연구원의 기업 스킨십 행보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이 4일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활동 보고'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현대차 글로벌연구원(대기업 연구기관)·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당교(중국 공산당 직속 교육기관) 등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연구원은 이들과의 협력으로 민주당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경제·국제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권관계자는 4일 민주연구원과 국내외 우수 싱크탱크들의 정책협력 형태 관련 "지역과 현장, 전문분야별 강점이 있는 각각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의 연구주제를 정해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성과가 나올 경우,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정계

일각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민주연구원 행보는 '기업 스킨십'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현대차 연구소는 수소차를 비롯해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전망을 각각 총괄하고 있다"며 "두 싱크탱크가 8월 안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수소경제' 관련 내용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는 수소경제의 일환인 수소자동차를 신성장산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자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4@



국가유공자 초청한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박종길 무공수훈자회장(오른쪽)이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뒤 거수경례로 인사하자 고개 숙여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달리는 차량서 세계 첫 5G방송 성공

美 싱클레어- 하만과 시연 행사

SK텔레콤은 미국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전장기업 하만과 손잡고 달리는 차량 안에서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과 방송을 연결하는 '5G-ATSC3.0 기반 차세대 방송' 시연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연 행사에는 크리스토퍼 리폴리 싱클레어 방송그룹 CEO도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

ATSC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이다. 영상, 소리에 데이터까지 주파수에 실어 나를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시연행사에서 5G 통신망과 고속 이동수신 환경에 최적화된 ATSC3.0 방송망을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최초로 연동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차량 내부의 스크린에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과 크리스토퍼 리폴리 싱클레어 방송그룹 CEO가 차량 안에서 5G-ATSC3.0 기반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서 풀HD 화질의 실시간 방송을 중계하는데 성공했다.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ATSC3.0 방송망을 통해 맛집 추천 정보, 교통정보(신설도로, 장애물 등)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 차량 내 세 개의 좌석 앞에 각각 설치된 스크린에서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다가 서로 다른 광고가 나오는 모습을 시연했다. 5G망이 각 좌석의 기기 IP(현재는 로그인 기반)를

인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원리다.

향후에는 스포츠 중계를 여러 앵글로 골라보는 멀티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메인 화면에서 축구 중계를 보면서 여러 개의 분할 화면을 통해 공격수, 골키퍼 시점의 화면도 동시에 볼 수 있다. 각 분할 화면을 느린 화면으로 재생해 인상 깊었던 장면을 다시 감상할 수도 있다. /김나인 기자 slkni@